

## Titus (디도서)

Tape #C2619

By Chuck Smith

-----  
-----  
Not much is known about Titus. Paul makes slight references to him in the Corinthian epistles. 디도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서신에서 그에 대해 조금만 언급할 뿐입니다.

Outside of that know very little about Titus, except what we can pick up in the book. 이처럼 우리는 디도서를 통해 디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을 뿐 성경 밖에서는 그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합니다.

Evidently he was a convert of Paul, as was Timothy, because he calls him his “beloved son” as he did Timothy. 분명히 디도는 디모데처럼 바울에 의해 개종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것처럼 디도에게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He wrote his epistle to Titus at about the same time that he wrote the first epistle to Timothy.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첫번째 편지와 거의 같은 시기에 디도서를 기록했습니다.

There is a similarity between the two epistles, in that in both of them Paul is establishing the order within the churches the appointment of the elders and the various other offices within the church and the functions of the various groups within the church. And so with that brief background lets turn directly to the book as Paul introduces himself here as Paul, a servant of God (1:1),

이제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서 와 디도서의 유사점은, 두 서신에서 바울이 교회 안에 장로들을 임명하고 또 다양한 직분들과 다양한 모임의 기능들에 대한 질서를 교회안에 확립하는것입니다. 그 짙막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는 이 책을 살펴보겠습니다.

The Greek word is “douleuo”, which is “slave”. It is a title of humility but in the same token it is a title of pride. 그리스어로 “둘레오”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겸손의 호칭이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조금 섞여 있습니다.

What greater thing could a person be than the servant of the Eternal living God, the Creator of the universe? And so he sees himself. Moses was called a servant or a slave

of God, as was so many in the Old Testament. 영원토록 사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분의 종이 되는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노예라고 불리어 졌습니다.

And so Paul begins his book to Titus by the declaration of himself as a slave of God. 그래서 바울도 자신을 하나님의 노예라고 선언 하면서 디도에게 쓰는 그의 편지를 시작합니다.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or an envoy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faith of God's elect, and according to the truth which is after godliness (1:1); 계속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 된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So Paul a servant of God writing to Gods' elect, the faithful, who are seeking the truth which is after godliness. 하나님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즉 경건함에 따라 진리 구하는 자들의 신실함에 관해 쓰고 있습니다.

I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1:2);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1:2).

Now I do not know where God promised eternal life before the world began, except that God existed before the world began. This word 'eternal' is the Greek word *aiōnios*, which is age abiding life. And it is important that we recognize that this is more than duration, it is quality of life.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어느 시점에서 영생을 약속하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영생이란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이오니오스'인데 그것은 영속적인 삶이란 뜻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인 기간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훌륭한것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When the rich young ruler came and fell at the feet of Jesus and said, Good Master, what good thing must I do to inherent eternal life, he was using this same Greek word, this age-abiding life. He no doubt had been observing the life of Jesus and he saw that there was a quality in the life of Jesus that was above and distinct from anyone else he had ever seen. There was this glorious quality of life, this age-abiding life. And so his quest was for this quality of life, as well as the duration.

한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말하기를,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그가 동일한 그리스어를 사용 했으며 이것은 바로 시간의 제한이 없는 영속적인 삶을 나타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도 없이 예수님의 삶을 주의 깊게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결코 볼 수 없었고 현저히 다른 예수님의 삶의 가치를 그는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존귀한 삶이었으며 영속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관원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훌륭한 삶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Now God has given to us the hope of eternal life. This of course was promised by Jesus Christ when He said to Nicodemus, “That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It is a blessed hope that we have a hope that has been confirmed by the resurrection of Christ from the dead.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 이니라”(요3:16) 라고 말씀 하실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확인된 우리의 소망은 복된 소망입니다.

So Peter in his epistle said, “Thanks be unto God who has begotten us again unto a living hope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to an inheritance incorruptible, undefiled, that fades not away, reserved in heaven for you who are kept by the power of God.” (1Peter 1:3-5)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1:3-5) 라고 말했습니다.

There is the promise in the Bible to those who would believe in Jesus Christ, that God will give to them the gift of eternal life. We read,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the life is in the Son. And he who has the Son has life” (1 John 5:11).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5:11)고 합니다.=====➔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is promise of eternal life is a valid promise. As we look at nature, we see that God has created in nature the very hope of resurrection in the principles of nature, in the planting of a seed into the ground. The seed, first if all dies before it comes into new life, then the form that comes out of the ground isn't the form that you planted because all you planted was a bear seed, and God gives it a body as pleases Him. 이 영생에 대한 약속이 유효한 약속이라고 믿는것은 합리적인것 입니다. 우리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식물로 자라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자연의 원리 안에서 부활에 대한 소망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일 그 씨가 새 생명으로 바뀌기 전에 온전히 죽었다면, 새 생명이 대지를 뚫고 땅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그것은 땅에 뿌렸던 그 씨의 모양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이 보건대 여러분 모두가 비록 씨앗을 뿌렸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기뻐 하심으로써 새 생명인 식물로 자라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And so i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planted in corruption but raised in incorruption, planted in weakness, raised in power; planted in dishonor raised in glory; planted as a natural body but raised in a spiritual body.

우리는 비록 부패한 가운데서 뿌려졌으나 전혀 부패하지 않은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고, 약함 가운데 뿌려졌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함을 거두게 하시고, 치욕 가운데 버려졌어도 영광 가운데 세워 주심같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도 육신의 몸으로 죽었으나 영의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This past week as we were up at the conference center I saw one of these little caterpillars crawling along, and I was reminded of our little girl, when she was a little girl. She is now a young lady, let's settle for that. How excited she was one day when she came running into the house and said, Daddy, daddy, there is a furry coat walking outside. 지난 주 수양 관에 올라 갔을 때, 나는 작은 누에고치들 중 한 마리가 홀로 기어오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때 우리 작은 아이의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이야 다 자란 숙녀지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어느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집으로 막 뛰어와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아빠,저기 바깥에 솜털 외투가 걸어가고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And as I watched that little caterpillar as it was crawling along, I realized that it existed in a body that was designed to do just what it was doing, crawl along the earth. I could imagine that, that little caterpillar could in his mind wish that maybe it could fly, but the body is not designed to fly. The body of a caterpillar, with all of its legs, is designed to

just crawl across the ground. 나는 이 작은 누에고치가 기어 오르는 것을 보면서, 누에고치는 배를 땅에 대고 기어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누에고치의 몸이 날 수 있게 설계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애벌레가 앞으로 날게 될 것을 희망할 수 있을 거라고 나는 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누에고치의 몸은 모든 다리를 사용해서 오직 땅을 기어 다니게만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But one day the little caterpillar crawls up the wall of the house and exudes a little glue, spins chrysalis around itself. And in time that chrysalis will begin to shake and jerk with convulsive movements until it breaks open and there unfold the beautiful gold and black wings, and the tiger swallow tail butterfly begins to fly across the yard, over the fence, over the fields and away. 그러던 어느날 그 애벌레가 담벼락을 기어오르더니, 끈적이는 수액을 토해 내면서 번데기 안에서 스스로 회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조금씩 흔들리던 번데기가 격렬히 진동을 시작하더니 그 떨림은 그 몸체가 부서지면서 열려 아름다운 금빛과 검정의 날개가 드러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 번데기는 금새 한 마리의 호랑나비로 모습을 드러내어 마당을 지나 담장을 넘어 저 들뜰으로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What has happened is a metamorphosis in nature; it's a change of body, where the caterpillar went into the chrysalis-state. 자연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유충이 번데기 과정을 지나 몸의 형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If you had taken during the chrysalis-state and pinch the chrysalis, juices would have just popped out all over, nothing but juice. But yet it formed into that glorious tiger swallow tail butterfly, which incidentally has the identical markings to the butterfly that laid the egg that hatched the caterpillar. 만일 우리가 번데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번데기를 인위적으로 억지로 쥐어 짜 본다면 수액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아마 터져 나오겠지요. 하지만 애벌레가 부화되어 다리가 달린 나비가 되어지는 것처럼 똑같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호랑나비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Now there you find a change of body that is now a new body designed for a totally different environment. So God, when He made our bodies designed them for the environment of the planet earth.

지금 여러분이 알게 된 변화된 몸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 맞게 설계된 새로운 몸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지구라는 환경에 잘 맞게 설계 되었습니다.

But it is reasonable to believe that if God brought forth resurrection in a seed into a beautiful flower, the seed that germinated or died, if God can change a caterpillar into a butterfly and give it a body for a totally new environment, then God can also give us a body that is adapted for a totally new environment. 씨앗 하나가 발아하거나 혹은 죽어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남으로 소생하는 것처럼, 애벌레가 나비의 형태로 변화하여 전혀 새로운 환경에 맞게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위해 고안된 새 몸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And that is exactly what the Bible teaches. Even as we have born the image of the earth and have been earthy, so shall we bear the image of the heavens; God has made this body and adapted it for the earth. And so we know when this earthly tabernacle, our bodies dissolve, we then have a building of God that is not made with hands that's eternal in the heavens. So then, "we who are in these bodies often groan, earnestly desiring to be delivered, not that I would be unclothed [or unbodied] but clothed upon with the body which is from heaven" (2 Corinthians 5:4). 그리고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흙에서 나서 이 세상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몸을 이 세상에서도 잘 적응하도록 고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 버릴 때 우리가 또한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영원한 천국의 하나님의 처소로 지으심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고후 5:4)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So the Bible teaches that for the child of God there is no death, there is only a metamorphosis, a change of body as I move from the tent to the house. The hope of eternal life, a building of God not made with hands, eternal in the heavens. That is new body that God has prepared for me, simply because of my faith, belief, and trust in Jesus Christ. Oh, what a glorious gift and what a glorious hope we have. 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이 없고, 오직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치 내가 처소를 임시 장막에서 집으로 옮긴 것 같이 육신의 변화만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영생의 소망, 즉 천국의 영원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새로운 몸이며, 단지 믿음으로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운 선물이며 놀라운 소망입니까.

Now, outside of Jesus Christ I know of no real hope beyond just life, as it is in this span of seventy years, plus or minus. Live like a hog, die like a dog and it is all over, you know. 사람이 기껏 살아야 칠십년 안팎인데 예수그리스도 밖에 있음으로 이 세상의 삶을 지나서 참 소망이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참된 소망이 없는 삶은 살찐 돼지같이 사는 것이며, 개처럼 죽고, 그리고 그렇게 끝장나게 되는 것입니다.

That's all you got to look forward to, because that's all that she wrote. Paul said that if our hope were in this world only, we would be miserable.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대했던 삶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쓰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둔다면 우리의 결국은 비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Man, if I thought, Hey, this is it, all of the purposes and everything else that are accomplished in this span now, and looked around and see God's best, I would think, oh, help. I would be miserable. But I have a hope that sustains me, that keeps me going when things are dark. I have a hope that sustains me when things are going against me, and I'm discouraged, there is that hope that keeps me going. Hope is so vital and hope is so important to existence to keep you going, and it's amazing how hope can just keep you going. 만일, 내가 “야, 이 짧은 인생 동안, 모든 목적과 모든 일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어 놓았구나. 이것이야 말로 내가 이루고자 했던 그 것이지. 그러면서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봐라” 하고 생각한다면 나야말로 불행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암울하고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소망이 나를 앞으로 전진하게 하고 나를 격려합니다. 소망은 진정한 생명력이며 소망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우리를 지탱하고 붙들어 주는지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We've mentioned before the experiments done with the Norwegian wharf rats. There are some corollaries. They put them in these tubs, and they spray these tubs constantly with water so that they couldn't roll over and float. And the rats drowned in an average of seventeen minutes. 언젠가 노르웨이 부둣가의 시궁쥐들을 가지고 실험한 것에 대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실험에서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이 몇 마리의 쥐들을 실험용 통 속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쥐들이 구르거나 떠 다닐 수 없게 하기 위해 물을 계속해서 뿌립니다. 그러면 쥐들은 보통 17분만에 익사하게 됩니다.

Then with an experimental group, as they were about to drown, they would take some of the rats, lift them out of the tub, dry them off, put them back in their cages, feed them, and let them live a normal life again. And then later on after they had recovered fully,

their health, they put them back in the tubs under the same conditions. And these rats that lasted an average of seventeen minutes, now were able to survive for thirty-seven hours. 그런데 쥐들이 익사 지경에 거의 다다를 즈음에 연구원들은 그 쥐들 중 몇 마리를 실험통에서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쥐들의 젖은 몸을 잘 말려주고, 쥐들이 서식하던 우리 속으로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고, 다시 평상시로 돌아가 살도록 놓아 둡니다. 얼마 후, 쥐들의 상태가 완전히 회복 되었을 때 연구원들은 다시 쥐들을 잡아 똑같은 조건의 실험통에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보통 17분 정도 견뎠던 이 쥐들이 이제 37시간 가량 살아 남을 수 있게 됩니다.

Interestingly enough, the psychologist who conducted the experiments contributed it to the fact that the rats had experienced a salvation experience; that is, they had almost drowned when they were saved, so they kept hoping for salvation again. That kept them going, not just seventeen minutes, now it kept them going thirty-seven hours. The hope made that much difference. 정말 신기하게도, 이 실험을 주도한 심리학자들의 이 연구는 쥐들이 구원을 경험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쥐들이 거의 익사 지경에서 구조되었기 때문에 쥐들은 또 구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쥐들에게 희망이 남아 있을 경우, 이제 17분이 아니라 37시간까지도 생명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망이 이만큼이나 쥐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Oh, what a glorious hope we have. Don't let anybody take it away from you, that hope that is in Jesus Christ of eternal life that is made by God, the promise of God, something so sure. God, who cannot lie, God's Word that cannot fail, has given to us the promise of eternal life, and thus the hope of eternal life. And so we live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that cannot lie, promised before the world began.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서 이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영생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로 식언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약속하셨고 이것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결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But hath in due time manifested his word through the preaching, which is committed unto m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ur (1:3);

3절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딤후 1:3)



Now the plan of redemption existed before the world because God knows all things. Now don't ask me why God, if He knew man was going to fall, created man. I don't know the ways of God. God told me I wouldn't know the ways of God. He said, My ways are not your ways; My ways are beyond your finding out. So, for His purposes and for His reasons, God created man knowing that man would fail, knowing that man would fall. But He also predestined the method of redemption, purposing to send His Son to reveal His love, so that those that would believe in Him would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through Him. 창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불순종할 것도 이미 아셨다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분의 길을 다 헤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분의 목적대로, 그 분의 뜻을 따라, 인간이 타락할 줄 알면서 그리고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질 것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 사랑을 나타내심 으로서 아들을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하여 영생의 소망을 갖도록 구원의 방법을 예비하셨습니다.

And so in due time --you see, time finally caught up with God.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당신은 그 때가 하나님과 함께 이르렀음을 알게 될 것 입니다.

In this one aspect we are still behind, in a lot of other aspects, but as we were explaining the eternal nature last Thursday night, for you that were here, how that God is outside of the time continuum. So that God looks at the whole spectrum of time with just one glance. 여러 가지 다른 행성들 가운데 인간은 여전히 단 한 개의 행성 뒤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목요일 밤, 여기 있던 사람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자연계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시간의 전체 영역을 한번에 보기 위하여 시간이라는 연속성 밖에 머무실 수 있을까 얘기했습니다.

He sees the end and the beginning with just one glance. So it isn't six thousand years ago, or two thousand years from now, God sees it all right now, the whole thing. He sees the entire picture, looking at the whole picture at one glance. I see it within the time continuum as it's passing by me, but God looks down and sees the whole thing at once. And so that plan of eternal life, the plan of redemption existed before the world began, but in due time God has made it known unto man. 하나님은 단 한번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처음과 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분에게 있어서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나 혹은 6000년 전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단 한번 힐끗 보시는 것만으로도 전체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기를 시간의 연속성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그저 나를 지나쳐 가는 것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번에 모든 것을 다 보시는데 위와 아래 그리고 전체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과 구속의 은총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획되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사람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And Paul said, "To him was committed the preaching of this glorious commandment of God and our Savior." Now he is addressing the letter, 3절에서 바울은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To Titus, my own son after the common faith: Grace, mercy, and peace (1:4), 이제 4절 말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편지 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찌어다."(딤후1:4)

As with the epistle to Timothy, he includes the mercy with the grace and peace, which are Paul's common salutations. 디모데의 서신에서처럼 바울은 공통된 인사말인 은혜와 평강의 공홍하심을 서신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1:4). 계속하여 4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딤후1:4)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I do not know why in the translation of the Bible they do not put a comma after the word "Lord", when it is coupled with Jesus Christ, so that we have a clearer distinction that the word "kurios" is a title, it is not His name. So many times we think of that as His name. It is not His name; it is His title, by which we signify relationship. If He is Lord, then we are the servants. If I call Him "Lord", the immediate relationship is I am servant. By my calling Him "Lord", I am declaring myself His servant, His Subject, His slave. 나는 왜 성경 번역에서 '우리 주'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용될 때 '우리 주'라는 단어 뒤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큐리오스, 즉 '주'라는 단어는 단지 존칭이며 그의 이름이 아니므로 분명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라는 말을 이름인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걸 예수님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간의 관계 안에서 붙여지는 존칭입니다. 만일 그 분이 우리의 '주인' 이시라면

우린 종이 되겠지요. 내가 그 분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면 이 직접적인 관계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주여”라고 그 분을 부름으로써 내가 그의 종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분에게 종속돼 있으며 그의 노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That is why Jesus said,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yet you do not do the things I command you? That is inconsistent. He said, Many will come in that day saying, Lord, Lord, but He will say, Hey, I never knew you. A lot of people use that title as a name, and thus they do not really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the title. The “Lord”, that is His title. His name is Jesus. "Thou shalt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people from their sins" (Mat 1:21).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일들은 하지 않으면서 왜 나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느냐”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치에 맞지 않는 태도입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와서 말하길 주여, 주여 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는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이름인줄 알고 사용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호칭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그 분의 호칭입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마1:21)

And “Christ” is His mission. He was the Messiah; He was to be the Messiah, the Savior. That was His mission. His name is Jesus. His title to me is “Lord”. And so I like to pause and say, “The Lord, Jesus Christ.” Just to make it separate from the name, giving the distinction of the title. 그리고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뜻합니다. 그 분은 메시아 이십니다. 그는 메시아 곧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메시아가 되심’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호칭과 이름 사이에 잠깐 간격을 두어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For this cause [Paul said] I left thee in Crete, that thou should set in order the things that are wanting, and ordain elders in every city, as I have appointed thee (1:5):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  
한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딤후1:5)

Now, Crete had a very bad reputation. The people of Crete were known to be unscrupulous. They were money-mongers. There were in the ancient days, what they called the three evil C's: the Cretians, the Cicilians, and the Cappadocians. But Crete they said was the worst of all. And in fact, a Greek word, “crecia” was ultimately coined from the evilness of the Cretian people. And “crecia” is a man who is so money-hungry that he is dishonest and unscrupulous in all his dealings. 그레데라는 지역은 아주 평판이 좋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과렴치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탐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그레데 사람들, 시칠리아 사람들, 그리고 가바도기아 사람들을 가르켜 알파벳 c로 시작하는 3대 악인이라 일컬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레데 사람들은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사실 그리스어로 ‘크레시아’는 그레타 사람들의 사악함을 궁극적으로 조합해 놓은 말입니다. ‘크레시아’란 모든 거래에 있어 비양심적이며, 부정직하여, 돈을 탐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And such were the Cretians known to be, and yet in this environment there was the body of Christ. And Paul left Titus, who was much like Timothy. According to Paul in Corinthians, He had the heart of Paul. He was a trustworthy servant and companion with Paul in the Gospel. And so he left him in Crete with the purpose of ordaining elders in every city as Paul had appointed him.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그레타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 몸, 즉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처럼 헌신된 형제 디도를 그곳에 보냈습니다. 고린도서에 기록된 바울의 말에 따르면 디도는 바울의 마음을 품은 자였습니다. 그는 복음 안에서 바울의 충성된 종이었고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임명했던 것처럼, 각 도시에 장로들을 임명하여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디도를 그레데 교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Now somewhere along the line, the church got the idea that elders were to be elected. Where this idea developed, I do not know. In the New Testament the elders were always spoken of as being ordained, selected and ordained by the pastoral leadership. And so he is telling him that he is to ordain elders in every city. 어느새 교회들이 장로를 선출하는 일에 세상적인 아이디어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생각들이 발전되었는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장로들은 목사의 지도력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출 됨으로써 항상 임명 받은 자로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 도시마다 장로들을 임명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The qualifications: if any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having faithful children not accused of riots or unruly. For a bishop must be blameless, as the steward of God; not selfwilled, not soon angry, [or not short-tempered,] not given to wine, no striker [and that means a guy that is cuffing people or hitting people.] (1:6-7), 디도서 1장6,7절에 그 자격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찌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며”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Somewhere along the line it must have happened that those who were appointed to the offices of bishops could not really handle their power. And thus, there are rules in the early church against the bishops, that if a bishop is striking a man or striking people, than he is to be deposed from his office. 어느 틈엔 가 목사들이 장로들의 권력을 다스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목사를 거부하는 종교적인 규칙도 있고 해서 만일 목사가 어떤 개인이나 사람들에게 거슬릴 경우 그는 목회지에서 면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You know, there are some people that just can't handle power. It goes to their head and they become just tyrants. And that happens even in the church, unfortunately. And so they are not to be a striker that means --it doesn't mean someone who goes on strike, but it means someone who strikes someone else with his hand or fist. 여러분이 알다시피,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만해서 결국에는 폭군처럼 되고 맙니다. 불행하게도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업 노동자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파업에 돌입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접근해서 어떤 사람을 파업하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Not given to filthy lucre (1:7) ; 계속하여 7절 말씀입니다. “부정한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딤후1:7)

Which of course was hard to find in Crete because that w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retians. Those are the negatives. The positive traits is that he must be a lover of hospitality (1:8),

물론 그레테 사람들 안에서 이런 성향을 찾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모습들이 부정적인 면이었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적극적인 특성들도 있었음에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In those days there was a lot of travel and there weren't always good accommodations. The public inns were usually places of ill repute, immoral, and just a place of debauchery. 그 시대는 많은 여행자들이 있었지만 항상 만족할 만한 숙박 시설이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선술집은 여행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쉴 수 있는 장소 라기 보다 오히려 평판이 나쁜 곳이었고 부도덕했으며 그저 유흥장소에 불과했습니다.

And so when a Christian traveled, it was hard. And so there developed within the church a great hospitality to other Christians, the opening of the door. And it was a very important thing that the elders set the example and that their house be an open door so that Christians passing through would have a decent place to lodge, "a lover of hospitality". 그래서 그리스도인 들이 여행을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서 다른 그리스도인 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크게 환대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여행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들이 거처 하도록 장로들이 그들의 집을 제공하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본보기가 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a lover of good men, sober, just, holy [good], temperate (1:8); 이제 8절 말씀입니다.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딤후1:8)

Now as you look at these, they are pretty much just the opposite of the things he had said earlier. He said not quickly to anger, and here he says, "Temperate". And so it is just sort of the opposite of the negative characteristics that he had named earlier. And as you compare this with first Timothy, you'll find that the list and the qualifications are pretty much identical with what Paul gave to Timothy in the ordaining of elders, few differences. 이 구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레테 사람들은 바울이 앞서 언급한 것과 대체로 반대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테의 그리스도인 들을 향해 성내기를 더디 하며 또 절제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앞서 이미 얘기했던 부정적인 특성들과 반대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디모테 전서와 비교해 볼 때, 바울이 장로들을 임명하는데 있어 디모테에게 주었던 그 자격과 목록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Holding fast the faithful word as he has been taught, that he may be able by sound doctrine both to exhort and to convince the gainsayers (1:9).

1장9절 말씀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딤후1:9)

Or those that would ridicule Christianity.(?)

So he had to be a man of the Word. He had to be a man of sound doctrine, capable of teaching sound doctrine. 바울은 말씀의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었고, 바른 교훈(정통 교리)을 믿었을 것이며, 바른 교훈(정통 교리/이하 바른 교훈으로 통일함)을 가르치는 일에 능숙했을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weaknesses of the church today is the lack of solid doctrine teaching, or the teaching of solid, sound doctrine. 오늘날에 있어 교회가 지닌 가장 큰 취약점 가운데 하나는 가르침의 부족, 즉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Too many times, the church has been, become an entertainment center. The church has sought to attract the crowd through an entertaining program, and the churches vie with one another for the most entertaining program, for the grandest organ, for the greatest choir, for the biggest productions. 너무나 많은 오늘날의 교회들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오락센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군중을 모으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거대한 오르간, 최고의 성가대, 제일 큰 공연 등을 가지고 저마다 경쟁을 합니다.

People with itching ears wanting to hear sermons with cute little stories and filled with jokes, no content to them, but they are very entertaining. He's an excellent orator. Oh, I never laughed so hard in all my life, oh my, is that fellow funny. Sad, because, the church is weak. What we need is sound doctrine. We need those that can teach sound doctrine and establish people in the faith and through the Word of God, prove that Jesus is indeed the Messiah, the promised One of God. 귀가 얇은 사람들은 매력적인 짧은 이야기와 우스갯소리들로 가득찬 설교를 듣기 원합니다. 그런 것이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해도 그들은 그것을 즐겨워 합니다.

“와,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한 달변가야, 나는 내 평생에 이렇게 신나게 웃어 본적이 없어, 진짜 멋진 설교자야...”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올바른 말씀(정통 교리)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Exhorting and convincing people of the truth. For there are many unruly and vain talkers and deceivers, specially they of the circumcision (1:9-10):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That is, the Judaizers, those who were safe from the ranks of the Jews. And what has Paul called them? Empty talkers; that is, there is no real content to their message. There is no real discovery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in their message. They are deceivers. 유대주의자들은 유대 계층으로부터 보호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속빈 말쟁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메세지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진정한 발견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속이는 자들인 것입니다.

Whose mouths must be stopped, because they subvert whole houses, teaching things which they ought not, for filthy lucre's sake (1:11).

이어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를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엇드려 치는도다” (딤후1:11)

Men who are in the ministry for the profit, for the financial gain, willing to say the things that the people want to hear, in order that they might live a luxurious lifestyle that they want to live. 이득이나 경제적으로 무엇을 얻기 위해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방식의 삶을 위해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들을 기꺼이 말합니다.

One of themselves, [Paul said] even a prophet of their own, said, The Cretians are always liars, evil beasts, slow bellies (1:12). 12절 말씀입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He said, “This witness is true”. Now what is he saying? That it is true, that this is true of the Cretians? They are always liars, evil beasts, slow bellies? Well it was quite true of the Cretians, many of them, but of course generalizations are never right or accurate. You can't say “all” Cretians. You can't generalize. 바울은 그 증언이 참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레테 사람들의 참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까?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요, 게으름꾼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많은 그레테 사람들에 대해 매우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올바르지 않고 혹은 정확하지도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그레테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Yes, it is true of some of them. I think when Paul said, “This is a true witness”, what he is saying is, I know that someone actually said this, someone actually did say this, one of the prophets in talking of the Cretians. 그들 중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분명히 일컫는 말입니다. 제 생각에 바울이 “이것은 참된 증거”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실은 그레테 사람들에 대해 말하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그렇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And this is a true witness. [that it actually was said] Wherefore, [Paul said] rebuke them sharply (1:13). 13절 말씀입니다. “이 증거가 참 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So here’s Titus who is to stand up before these false teachers, these men who are out after their own glory and enrichment, and he is to rebuke them sharply, 여기 거짓 선생들 앞에 세움을 입은 디도는 자신의 영광과 부를 좇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that they may be sound in the faith. Not giving heed to Jewish fables, and the commandments of men, that turn from the truth (1:13-14).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좇지 않게 하려 함이라”

So those Judaizers that were in plagues to Paul wherever he went, who taught the people in a mixture of faith and law in order to be saved.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귀찮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혼합된 믿음과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Paul said, Un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1:15): 다음은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라고 말했습니다.

Jesus said, it isn’t what goes into a man’s mouth that defiles a man, but what comes out, for out of the abundance of the heart the mouth speaks. So Jesus is saying really it is

what is in a man's heart that is really important. "Un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Now I've met some people that are looking for dirty little innuendoes in everything, that are always looking for some impure angle in the speech or what else to make some dirty little pun. It is a reflection of what is in their minds, what is in their hearts. "Unto the pure all things are pure." Oh God, make me pure.

예수님께서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마15:11)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나는 매사에 약간 비꼬는 말들, 즉 더러운 풍자거리를 찾아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얘기 속에서 항상 어떤 불결한 관점을 찾거나 더러운 말장난들을 만들어 냅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가, 혹은 무엇이 과연 그들의 심령에 있는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오..주님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But unto them that are defiled and unbelieving is nothing pure; but even their mind and their conscious is defiled (1:15). 계속하여 15절 말씀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 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I have been around these kinds of people. I feel like taking a bath or a shower when I leave them, filth rolling out of their mouths continually.

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있어 본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음담패설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사람들과 헤어질 때 나는 샤워를 한다거나 목욕을 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They profess that they know God; but in their works they deny him, being abominable, and disobedient, unto every good work they are reprobate (1:16). 이제 1장의 마지막 구절인 16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 2장 \*\*\*\*\*

And so Paul is warning Titus concerning these false teachers. But he said to Titus, 이제 디도서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거짓 선생들을 주의하라고 경고했습니다.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speak the things which become sound doctrine (2:1):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라고 했습니다.

Again, the emphasis and the exhortation is that of sound doctrine.

거듭하여, 그 바른 교훈에 대한 강조와 훈계를 말한 것입니다.

Now, teach 또 2절 말씀에 가르치기를..

that the aged men (2:2), “늙은 남자로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And this should be the older men. Well, age is aged, I don't know, probably eighty-five or a hundred, I don't know, surely not one in their fifties.

이 말은 나이가 꽤 든 사람을 가르키는 말이겠지요. 물론,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마도 85살 혹은 100살 정도, 글썄요. 틀림없이 50대 나이의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That the aged men be sober, grave, temperate, sound in their faith, and in their love, and in their patience (2:2). 계속하여2절 말씀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You know, it's a beautiful thing and way, age does seem to mellow. The older men should be sort of mellowed out as they grow older. I personally feel that, and I am certain that it is with a great deal of prejudice, that my son Chuck Jr. is one of the finest Bible expositors I've ever heard. I'm so proud of that young man and his ability to teach the Word of God, his tremendous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God's Word. But he has had a problem in his ministry and that is his sharpness, and this has concerned me.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어 원만하게 보이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답게 원숙해져야 합니다. 물론 저의 편견이지만, 개인적으로 나는 내 아들 척 주니어가 지금까지 들어 본 성경해설자 가운데 최고라고 확신합니다.

나는 젊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그의 방대한 지식과 이해력이 놀랍습니다. 그러나 그의 사역 안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원만하기 보다는 그의 날카로움 때문에 나를 걱정하게 만드는 일들이었습니다.

So that whenever he was going to speak here when I was gone I would tell him, Now Chuck, remember the love of God and remember grace, because he has a tendency to use the whip. And as my wife and I have talked about his ministry, we felt that, that was

the tremendous shortcoming of his ministry, the lack of mellowness. But I have told my wife, Honey, in time he will mellow out. And with the recent arrival of twins making five children, it is amazing how he has mellowed out. Age does that for you. You become more temperate, more patient, more mellow. And it's good; we need that. We need to be more understanding and more compassionate and dealing with the shortcomings of others with a great deal of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and meekness. 그래서 아들이 이곳에 말씀을 전하러 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꾸짖고 야단치는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내가 아들의 사역에 대해 이야기 할 때면, 우리는 원숙함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단점인지에 대해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때가 되면 아들도 원숙하게 될 거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쌍둥이 자녀가 다섯 명의 손자를 낳아 방문 했었는데 얼마나 그가 달라졌는지 참으로 원숙해졌습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은 더 절제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더 인내하며, 더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참 좋은 일이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더 이해심이 필요하고, 더 깊은 연민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해와 연민과 온유를 가지고 다른 결점들을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Paul said, “If a brother be overtaken in the fall, ye that are spiritual, restore such a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yourself lest you also be tempted” (Galatians 6:1).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The younger people have a tendency to be a little sterner, harder, because they have not experienced yet those things in life that have by their very nature, the tendency of causing a person to become mellow. And so the aged men sound in faith, in love and in patience.

젊은 사람들은 좀 더 엄격하게 또 강하게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난 삶 속에서 아직 사람을 더욱 원숙하게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은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The older women, likewise, [forty or so] that they be in behavior as becomes holiness, not false accusers, not given to much wine, teachers of good things; that they may teach

the young women to be sober, to love their husbands, and to love their children (2:3-4).  
이제 3절과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In that culture, where women for the most part stayed in their rooms, never mixed socially, would only go out into the public market in twos, never alone. There was little for the women, life became drudgery. And alcoholism among women was very prevalent as they sought to escape the drudgery of life. And so that is why the emphasis upon “being sober, to love their husbands and love their children.”

문화적으로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합니다. 그들은 상점도 절대 혼자서는 가지 않고 꼭 두 세 사람이 함께 갑니다. 그러면서도 결코 사회적으로 혼합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들이 적었고 인생은 따분하고 고됐습니다. 고된 일상에서 헤어 나오길 바랄 때 여자들 가운데 알콜 중독자들이 생겨 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하지만 바울은 강조하기를 맑은 정신으로 남편과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Oh God, we need such teachers today when our whole culture is pressuring women to find a career, to make their way in the world. Why be confined to a house? Why give your life for those children? Put them in a daycare center and you find your place in the world, make your mark. How we need those who will teach the younger women how to love their husbands and how to love their children. 오늘날 우리의 모든 문화는 여자들에게 경력을 쌓아 이 세상에서 자신만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라고 계속 종용합니다. “왜 집에 틀어박혀 있습니까? 왜 자신의 인생을 자녀들에게 빼앗겨야 합니까? 아이들은 탁아소에 맡기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만의 영역을 만드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남편을 섬겨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지 젊은 여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How]to be discreet [in discretion among women], [how to be] chaste, keepers of their homes, good, obedient to their own husbands, that the word of God be not blasphemed (2:5). 5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One of the saddest byproducts of the failure of a Christian is that it gives occasion to the enemies of God to find fault with Christianity and to blasphemy God. 그리스도인 들에게 있어 가장 슬픈 실패의 부산물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기독교 안의 실패를 발견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도록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When David had committed his sin with Bathsheba, and Nathan was rebuking him for it he said, You have caused the enemies of the Lord to blasphemy, you give them a cause to blasphemy God. We must be careful in our life, the way we live, that by our actions we live a pure, chaste, discreet life so that the enemies of God will not have an occasion to blasphemy the name of Jesus on our account. Yeah, he's supposed to be a Christian and look at that blankety-blank so-and-so. If that's Christianity then blah, blah, blah, and you give cause for the enemies of God to blasphemy the name of Jesus Christ. God, help us that we don't do that. 다윗 왕이 밋세바와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기를 당신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크게 훼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그 삶을 살아가는 방식 안에서 정결하고 순결하며 사려 깊은 말로 주의함으로써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야,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은데 저 꼬락서니 좀 봐라, 이렇고 저렇고, 저게 그리스도 인이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훼방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도와 주십시오.”

Young men, likewise, exhort to be sober minded. In all things showing thyself a pattern (2:6-7).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So Titus, don't just tell them. You be the example. That's what he said to Timothy, remember, Be thou an example unto the believers. Paul, when he was talking to the elders of Ephesus on his last recorded visit in the book of Acts, as he met them on the beach at the shores of Miletus, Paul said to them, You know how that over the space of the three years I was with you night and day, showing you and teaching you. He wasn't just teaching precepts, but he was actually demonstrating the lifestyle that he was espousing.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에베소의 밀레도 항구에서 장로들을 만나,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행20:31)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훈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지지해 왔던 것들을 실제적인 삶을 통해 입증했던 것입니다.

And so he is telling Titus now, Look Titus, let your life be the demonstration. Show them Titus; live before them this kind of a life. Teach them that they should be sober-minded, but in all things showing yourself the pattern. You set the pattern for them, the pattern of good works.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그대의 삶으로 증거하라. 여기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들에게 분별 있게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키되 그러나 모든 일에 있어 네 자신이 본을 보여라.”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in doctrine showing uncorruptness, gravity, and sincerity, sound speech, that cannot be condemned; that he that is of the contrary part may be ashamed, because he cannot say any evil thing about you (2:7-8). 이어서 7,8절 말씀입니다.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Now, there are people who will say evil things about you just because you are a Christian and they do not like you for that fact. 여러분들에 대해 어떤 악한 말들을 하려는 사람들은 단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We were told recently by a young girl that her parents are constantly lying to her about us because they don't want her to be drawn to Christianity. And she said, Did you say this to my mom? And I said, Oh my, no. She said, I didn't think you did. I said, No, of course not. I said, in fact she had done something, and her mother said, Oh he is very angry with you. He came out and is just really upset for you doing that. And she said, Are you upset with me? And I said, No I think it's really great. In fact, remember I gave you a pick to help you. I think it's great what you did. It was the only wise thing to do. And she said, Well my mom told me that you were really upset and mad, but she lies a lot about you, to me because she doesn't want me to like you. She doesn't want me to be drawn to Christianity.

우리는 최근에 한 소녀로부터 자신의 부모가 우리에게 번번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유는, 그 부모가 자기 딸이 기독교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소녀가 내게 “혹시 이런 사실을 우리 엄마에게 말했나요?”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아니, 그럴 리가 있겠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는 “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결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엄마가 말하기를, 목사님이 너한테 화가 많이 나 있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해 드러내놓고 화를 내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에 대해 화가 많이 나셨나요?” 라고 물기에 나는 “아니 그런 일은 없어.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긴 참 좋은 일이란다. 사실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란다, 네가 해온 일은 아주 잘한 것이야.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 중 가장 지혜로운 일이지”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

소녀는 말하기를 “우리 엄마는 목사님이 제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나셨다고 말했지만, 사실 엄마는 제게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하셨어요. 그건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 이예요.”라고 했습니다.

So they're going to lie about you. They are looking for things and if they can't find anything, they are going to make up something, and that's sort of sad. But don't give them any fuel for their fires. Don't give them any cause for speaking evil, but live a life of commitment to Jesus Christ, dedication.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꾸며낼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일들을 찾고 있고 또 만일 뭔가를 찾아내지 못하면 그들은 이제 지어내려고 할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을 붙일만한 어떤 연료도 절대 주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것을 말한 만한 어떤 빌미도 주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헌신 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Now,

the servants exhort them to be obedient unto their own masters, and to please them well in all things; not talking back (2:9);

자, 이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Now, that's under your breath because you wouldn't dare talk back out loud, if you were a servant. But so many times we go away mumbling. 만일 여러분이 종의 신분이었다면 당연히 드러내놓고 불평할 수 없으니 속으로 삭혔겠지요.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린 이런 식으로 투덜거립니다.

Not purloining (2:10), 10절 말씀에는 “떼어 먹지 말고”라고 기록돼 있습니다.



Goldbricking. Do you know what that means? Probably not, a bunch of you young ones. Those that go back to World War II days know what that is all about. 골드 브릭킹(위조 금벽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제 2차 세계대전으로 거슬러 가면 이것에 대해 잘 알게 됩니다.

but showing all good faithfulness; [that is the servants] that they may adorn the doctrine of God our Savior in all things. For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has appeared to all men, teaching us that, denying ungodliness and worldly lust, we should live soberly, righteously, and godly, in this present world (2:11-12);

계속해서 11,12절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Now the grace of God that brings salvation, I'm saved by grace. Does that mean that I can live any old way? No. What does the grace of God teach me? That I should deny ungodliness, that I should deny the worldly lust, that we should live soberly, and righteously, and godly. God's grace teaches me that. It doesn't teach me that I can go out and live any old way I want and the grace of God will cover for me, but it teaches me that I am to live a righteous life.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을 이끄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낡은 구식으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내 자신이 불신앙과 세상적인 정욕을 모두 부인하고 의롭고 경건하며 그리고 진지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혼탁한 세상 밖으로 나가고 또 아주 구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As I look for that blessed hope, and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r Jesus Christ (2:13); 13절 말씀입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And this is the thing that keeps our life in perspective better than anything else; the realization that Jesus is coming soon, looking for the glorious hope of the blessed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인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원자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에 대한 영광된 소망을 고대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나은 관점에서 우리 삶을 유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John in his epistle said, “Beloved, now are we the sons of God, it doesn’t yet appear what we are going to be: we know, when he appears, we’ll be like him; for we will see him as he is. And he that has this hope in him, purifies himself even as He is pure” (1 John 3:2-3). It’s a purifying hope. Knowing that Jesus is coming at any time, live righteously, live godly.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The book of Jude, the central message is found in verse twenty-one when Jude said, “keep yourself in the love of God”. And one of the ways by which he tells us that we can keep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as we are looking for the glorious mercy of God at the appearing of Jesus Christ, again, to keep my life in perspective. It’s important, so important that I know and realize that Jesus is coming at any moment and that I need to live in anticipation and expectancy of His immediate return,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our Savior. Here Jesus is called our great God, much to the chagrin of the Jehovah’s Witnesses. 유다서의 중심 메시지를 2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는 방법들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회하심을 고대함으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을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그것을 인식하며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우리의 구세주시며,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영광스런 나타나심과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분을 기대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에게서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all iniquity, and purify unto himself a peculiar people, zealous of good works. These things speak, and exhort, and rebuke with all authority. And let no man despise thee (2:14-15). 계속하여 2장 14,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He said to Timothy, “Let no man despise thy youth”(1 Tim 4:12). Titus was probably older, just don't let any man despise thee.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에서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말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도는 아마도 디모데 보다 나이가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바울은 역시 디도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Now, Jesus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the redemption through the death of Jesus Christ, through His shed blood. Redeem us from what? From all iniquity. The redemption is also positive, “to purify unto Himself a peculiar people”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은 그 분이 피를 흘리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 대속함을 주신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의 대속입니까? 모든 부정함으로 부터 입니다. 그 대속함은 자신의 선택한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전형적인 것이었습니다.

Now, some people have taken that wrong. I can remember years ago in my college days, that there was this one gal who always dressed so peculiar. I mean weird. And I one day asked her why she always wore such weird clothes. And she said, God told us we were to be a peculiar people. We are different from the world, that's for sure, but it shouldn't be in the dress, but in our total lifestyle that the difference is observed. Peculiar because I want to do good works, that's where I stand out from the world.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거두기도 합니다. 오래 전 내 대학시절을 기억하자면, 옷을 항상 이상하게 입는 여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 왜 그렇게 옷을 이상스럽게 입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우리가 아주 특별한 선택된 백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 말씀은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여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나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다.

Now,

rebuke with all authority, don't let any man despise thee. But put them in mind to be subject to the principalities and powers, and to obey the magistrates, and to be ready to every good work (2:15-3:1), 이제 2장15절부터 3장 1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So here as in many other places, the Christian is exhorted to obedience to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that are over us. It isn't just when I like what they are doing, but even in those areas that I find very galling to me. Even in areas where I feel they are wrong, I am still to be in subjection to those authorities that have been placed over me. Romans 13, All authority is of God. Be in subjection, Peter tells us to be in subjection. Now Paul is saying the same thing for Titus to teach the people the obedience to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오늘날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권세에 복종할 것을 권면받고 있습니다. 권세에 복종하는 일은 나를 찌푸리게 만드는 영역에서 조차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곳에서 조차도 나는 나의 위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우리가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동일하게 편지하길, 사람들이 정부의 권위에 순복 하도록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 3장 \*\*\*\*\*

To speak evil of no man, not to be a brawler, but be gentle, showing all meekness unto all men. For we ourselves also were at one time foolish, and disobedient, deceived, as we were serving our diverse lust and pleasures, living in malice and envy, hateful, and hating one another (3:2-3).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훼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법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Now, this is much like Ephesians chapter two where Paul gives a very interesting before and after contrast. "And you, [he said] who were dead in your trespasses and sins: who in times past walked according to the course of this world, according to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that even now works i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Among whom you all had your living, as you lived after the lust of your flesh and of your mind; and were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even as others. [The before life,] But God, who is rich in His mercy, wherewith He has loved us, and who has seated us together in Christ in heavenly places: And manifested that in the ages to come He might manifest the exceeding riches

of His grace and love toward us in Christ. For by grace ye ar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f" (Ephesians 2:1-8). So, the before and after.

이 구절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과 그후의 생활을 대조법을 사용하여 흥미로움을 주고 있는 에베소서 2장과 아주 유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1.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니
4.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 이니라
8.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바로 구원얻기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Now here we have the before and after also. And in the before, he divides it into three sections. The first section, are the foolish things that we did. 우리도 역시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3단계로 분류했는데 그 첫번째 부분은, 우리가 전에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For we ourselves also were at one time foolish (3:3). 3절 말씀에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t is foolish to disobey God. Foolishness was marked by disobedience, as Samuel rebuked Saul when he did not utterly wipe out the Amalekites and offered some flimsy religious excuse for his failure of total obedience. I brought them back to sacrifice them. He said, “To obey is better than to sacrifice and to hearken unto God is better than the fat of rams” (1 Samuel 15:22). In that you have not done what God commanded you, you have done foolishly. It’s always foolish to disobey God.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자 전쟁에서 얻은 소와 양을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끌고 왔다는 궁색한 종교적 변명을 들어놓음으로 선지자 사무엘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이 때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삼상15-22)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항상 어리석은 일입니다.

The second manifestation of his foolishness is his being deceived. And what a deceptive thing sin is. You remember Samson after his hair was cut and Delilah said, Samson the Philistines are upon you. He said, I will jump up as I did before, and he knew not the Spirit of God had departed from him. He was deceived as to his own capacities and his own strength. And a person who is deceived about the truth of their condition is foolish. 사람의 어리석음에 대해 두 번째로 명시된 것은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속이는 것인지요. 여러분은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들릴라가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해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삼손은 “내가 늘 하던 대로 무찌르리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신이 그로부터 떠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잠재력에 속았고 자신의 힘에 속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건이 어리석은 것이라는 진리로 부터 속은 것입니다.

Now the second category is under the category of slaves that is the same Greek word “douleia”, as you were slaves to your “diverse lusts and pleasures”. And it is easy for a man to become a slave to his lusts, all too easy. And all around you can see people who have been enslaved by their lust, their desire for drinking, their desire for alcohol, their desire for sex. These pleasures that they pursue, they become masters over them, tyrants ruling over them, and a man can become so easily enslaved by his fleshly appetites when we carry them to extremes. 그 두 번째 범주는 그리스어로 “둘레이아” 다시말해, 우리가 정욕과 쾌락의 노예였던 것처럼 노예의 범주 아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사람이 자기의 정욕의 노예가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정욕과 알콜 중독, 그리고 섹스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이 좇는 이런 기쁨들은 그것들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도를 지나쳤을 땐 너무나 쉽게 노예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The final listing is in the lifestyle, living. What is your lifestyle? “Living in malice and envy” the world around you. James said, from whence comes the fighting and the wars among you? Come they not from your own desires, your lust? You desire and you have

not. You envy those that do have. This envy, how hateful it is and how hateful it makes you, and so hateful and being hated, the world around us. 마지막 단계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 삶의 방식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의 세상은 투기와 적의로 가득찬 세상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좇아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을 좇아 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욕심은 당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지만, 시기는 소유한 것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하는 마음은 얼마나 증오에 찬 것입니까. 또 얼마나 우리로 증오하게 만듭니까. 이렇게 우리는 미워하고 또 미움을 받게 만드는 그 세상으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Paul said, that's the way we were. At one time we were foolish, we were slaves living a miserable lifestyle filled with malice and envy, hateful and being hated. Even as he gave the black picture in Ephesians, concluding that by nature, the children of wrath, he began the next verse with the word “But”, which is a disassociative conjunction. How I thank God for that disassociative conjunction. Here I am in this miserable, hopeless, lost state, alienated from God because of my lifestyle, walking after the flesh, denying the things of the Spirit, but God loved man in that fallen miserable state. The love of God conquered. But God, Paul said, who is rich in His mercy, wherewith He has loved us. And here having again listed these things.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었고 악의와 시기로 가득찬 부끄러운 삶의 노예였으며, 미워하고 미움을 받는 삶이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의 방식은 진노의 자녀, 자연적인 결과라며 어두운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귀절을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요. 지금 이 자리의 나는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영을 부인하는 나의 삶의 방식때문에 이렇듯 불결하고 희망이라고는 없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이방인과 같이 근본을 잃은 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더러움 가운데 버려진 인간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홀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2:4,5)라고 말했습니다.

But after that the kindness and the love of God our Savior toward man appeared (3:4), 이제 디도서 3장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Here was man in this terrible condition, still loved of God, and in time God's love was manifested. The kindness of God manifested to man in this helpless, hopeless state. So the time together of the contrasting ideas, man in his wretched fallen state and God in His glorious loving state, desiring to redeem lost, wretched man, but after the kindness and the love of God our Savior toward man appeared. 인간이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 있었을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소망이란 찾아 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절하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처럼 대조를 이루는 생각들을 모아 볼 때, 인간은 비루한 자리 빠져 있었고 하나님은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자신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고 후에 그의 잃어버린 불쌍한 사람들을 대속하시길 원하셨습니다.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3:5), 계속하여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Paul, in Ephesians, “By grace are you saved by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f: it is a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 (Ephesians 2:8-9). So here he declares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that doesn't save me, my works of righteousness can never save me. There is only one work that can save me and that is the work of Jesus Christ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엡2:8,9)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와 의로는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그리스도의 행하신 일 밖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And when they came to Jesus one day and said, “What must we do to do the work of the Father?” Jesus said, “This is the work of the Father, believe on Him who He has sent” (John 6:28-29). And so the only work that will bring you redemption is the work of Jesus Christ upon the cross. And there is not one single work that you can do to save your soul from the damnation that it deserves. But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God will grant to you forgiveness, pardon, and eternal life. Oh, the depths of the riches of God's mercy and love towards us in Christ Jesus.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사람들이 어느날 예수님께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으로 이끄는 오직 한가지 방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저주로부터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그의 용서와 관용과 영생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그 부요하심이 얼마나 깊은지요.” 우리가 행한 어떤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분의 긍휼로만 말미암는 것입니다.

When you come to God, we don't come to God and say, Oh God, justice, I want justice, but I come and say, God mercy, I need mercy. I deserve the judgment of God for my disobedience and rebellion against Him in my past life. But God is merciful towards me. God loves me. God has been so good and kind to me. And “not by the works of righteousness that I have done, but by His mercy He has saved me,”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오, 정의로우신 하나님.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의지하여 나온다면, 내가 과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반역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분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며 친절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의로운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by washing me with the regeneration, and the renewing of the Holy Spirit (3:5);  
5절 하반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That is that regeneration being born again by the Spirit. That's where I find my new life and that's where I find my hope. I've been saved by the work of God's Spirit within my life, that washing and cleansing of my sin and of my past. That's the glorious thing about the Gospel is no matter what might be in your past, what horrible, ugly things may exist there. The blood of Jesus Christ, God's Son cleanses a man from all sin, and by your coming to Jesus Christ there is a complete washing, a total obliteration of the past. And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He separated our sins from us. 중생, 즉

거듭남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새로운 삶을 발견한 그 곳에서 나는 소망을 발견합니다. 내 삶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과거와 죄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스런 의미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얼마나 끔찍했으며, 추잡한 것들이 거기에 존재하였는가를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므로 우리의 과거가 완전히 소멸되고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 분이 우리로 부터 그 죄를 멀리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Aren't you glad He didn't say as far as the north is from the south He has separated our sins, because my sins would only be eight thousand miles away if I went straight through or twelve and a half-thousand if I went around. Because I can only go north so far and then I hit the North Pole and I start going south. And there is a definite measurement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Pole, eight thousand miles going through, twelve and a-half thousand miles going around. But He said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하나님이 우리 죄를 북이 남에서 먼 것같이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게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만일 12500마일을 똑바로 향하거나 혹은 주변을 돌아서 간다고 가정할 때, 나의 죄는 단지 8000 마일 정도의 거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북쪽으로 계속 갈 경우 북극점과 만나게 되고 다시 되돌아서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해 우리가 남쪽이나 북쪽을 향해 직선으로 가든 돌아서 우회하여 가든 분명한 최극단점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죄를 동쪽이 서쪽에서가 먼 것 같이, 즉 극점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무한대로 용서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Now you start out east tonight and you can fly east the rest of your life or you can start out flying west tonight and you can fly west the rest of your life. You'll never fly east flying west, but you can ultimately fly south flying north. The moment you hit the North Pole, you are flying south from the pole. As far as the east, did David figure that out when he said that or is that inspired of God? As far as the east is from the west, so far has God separated my sins from me? Oh, how good and how loving and how kind God is to me, a hopeless, miserable, wretched sinner. The washing, the regeneration, the being born again, a new creature in Christ and the renewing of the Holy Spirit, who renews me day by day. 이제 여러분이 오늘 밤 동쪽이나 서쪽에서 출발해서 평생을 동이나 서쪽으로 날아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서쪽 방향으로 날아 간다면 반대편인 동쪽은 결코 만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쪽에서 출발하여 북쪽까지 날아갈 수는

있습니다. 북극점에 다다른 순간 여러분은 남극을 향해 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동쪽으로 갈 경우 결코 서쪽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동이 서에서 멀다는 것을 지식으로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영감일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정말 하나님은 나의 죄를 나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시고 친절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지요. 저와 같이 이렇게 소망도 없고 불결하며 악한 죄인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부활의 소망과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Which he shed upon us abundantly (3:6) 이제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Oh, how God has poured out His spirit of mercy and grace upon our lives because we needed it abundantly. 하나님이 그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성령을 우리 삶에 넘치게 부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 분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3:6) 계속하여6절 말씀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All that God has for you is wrapped up in Jesus. You don't get anything apart from Him. He is the package and it's all in Him, all-inclusive. This is the record God has given to us, eternal life; the life is in the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God has given us peace; this peace is in the Son. He who has the Son has peace. God has given us love. He who has the Son has love. God has given us joy. He who has the Son has joy. It's all in Jesus. God has nothing for you apart from Jesus all wrapped up in Him, which He has shed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r.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이 잘 표현돼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꾸러미,그릇과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 바로 영생입니다. 성경에서 그 영생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으며 그 아들을 가진 자에게 평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와같이 우리 삶에 영향력을 미치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That being justified [having been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 made heirs according to the hope of eternal life (3:7) 7절 말씀입니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So having now been justified; that is, declared innocent, declared righteous by God. 자.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고 무죄를 선포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The word justified is a declaration of my total complete innocence. How can God do that when I am so guilty? Because all of my guilt was placed upon Jesus Christ and He died for me. So the forgiveness of God towards me is a total forgiveness, so total that my past will never be brought up to me by God.

Justified, ‘의롭다고 인정받다’라는 이 단어는 모든 것이 완전히 무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워졌기 때문이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과거는 다시 나를 정죄하지 못할 것입니다.

Paul the apostle said in Romans chapter eight, “Who is he that shall lay any charge to God’s elect?” Oh, he’s a liar. Oh, he’s done this. Oh, he’s guilty of that. And he said, “Who is going to lay anything to the charge of God’s elect?” He said, “It is God who has justified.” In other words know this, God isn’t charging you with any wrong. The opposite, God has declared you totally innocent of all charges, justified you through Jesus Christ.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 맞아 그 사람 거짓말장이야. 그래 그 사람이 저지른 거지. 그의 죄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인정했다”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으로도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입증된 결백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So being justified by His grace, we should be made the heirs. The effect of that is I am now an heir of God, of God’s eternal kingdom. The riches of the glory of eternal kingdom of God are mine. I’m the heir of God. I’m a child of God. And if a son of God, then an heir, an heir of God and a joint heir of Jesus Christ. Oh, the glorious work of God’s salvation, not just saved from the wrath of God that is to be revealed against all unrighteousness and ungodliness of men who hold the truth of God in unrighteousness. But saved for the glory of God, to experience the glory of God through all eternity as a child of God and as

an heir of God, this hope that I have of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우리를 그의 유업을 이을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된 부요 하심이 다 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왕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요 그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함이 아님다. 내가 가진 소망, 즉 예수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한 구원입니다.

Listen, the world has nothing that can even come close to offering to you what God is offering to you tonight. If the world could offer you the whole world, with all of its glitter and all, it would be a sham compared with what God is offering you through Jesus Christ. Because if the whole world were yours, the glory of the kingdoms, the grandeur, the pomp, the circumstance, the adulation, how long would you have it? How long are you going to live? How many more years are you going to be here? Say you could have it for a hundred years, what is that compared with eternity?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같은 선물은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 비슷한 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줄 수 없습니다. 만일 세상이 여러분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하고 또 황금을 쥐어준다 해도 그것들은 하나님이 예수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과 비교한다면 그저 모조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온 세상이 여러분의 것이라면, 그 영광과 위용, 호화롭고 풍족한 환경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동안이나 그것들을 소유할 것입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얼마 동안 살게 됩니까? 몇 년이나 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게 될까요? 100년 정도라고 합시다. 이것을 영원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Moses made a very wise choice when he chose rather to suffer the affliction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pleasures of sin for a season, esteeming the reproaches of Christ, greater riches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y grace, we've been saved, we become heirs, we have the hope of eternal life.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5절에,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돼 있는데 이것은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은혜로써 우리는 구원하심을 입었고 우리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되었으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This is a faithful saying, and these things I will that you affirm constantly, that they which have believed in God might be careful to maintain good works (3:8).

계속하여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Now you say, Oh that is the opposite of what you've just been telling us. No, it is not at all. It's the next step.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not of works that we have done, but by the grace of God you are saved. But you that are saved need now to bring forth fruit unto righteousness by your good works. Your good works don't save you. They cannot save you, but your good works are a proof of your faith, for faith is active. Believing is an active verb not a passive verb, and true belief will manifest itself in the works of a person's life. So that James said, You show me your works and I will show you your faith. You say you have faith, faith without works is dead. You don't really believe it. 여러분이 혹시 이 구절을 읽을 때 “아,이것은 목사님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과 반대되는 말씀인데”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것은 선한 일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행위로는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참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선한 행위로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지요. ‘믿는다’라는 단어는 수동형 동사가 아니라 능동형 동사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은 사람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자체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2장 17,18절에서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8)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17)”고 말함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Now if I would make a prophecy that Southern California is going to be shaken and wiped out into the Pacific tomorrow morning and you called me up. Say I made the prediction for eight o'clock tomorrow morning, you call me up at seven-thirty and say, Still think it's going to happen? Oh yeah, if I'm still here? You'd say, Oh, he really doesn't believe it. But if you call me up and you got a recording that said, Sorry I'm not here I'm in Phoenix waiting for the big shake. You'd say, Hey, he must really believe it, his actions now are in keeping with his declaration. My actions, my works, must correspond with what I declare to believe. If I truly believe it, then there will be corresponding works that will be a witness to what I am believing and declaring that I believe. 만일 내가 “내일 아침 서부 캘리포니아가 지진으로 흔들릴 것이고 태평양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그 일은 내일 아침 8시에 발생할 것이라고 그 시점을 미리 알려 준다면, 여러분은 나에게 7시 30분쯤 전화해서 “그 일이 정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 올 때 내가 여전히 서부 캘리포니아에 있으면서 “그럼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은 했지만 그 사실은 믿지 않는 게 틀림없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제게 전화를 했는데 녹음된 음성이 들려오기를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에 없습니다. 저는 말씀 드린 대로 캘리포니아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지금 피닉스에 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음성메시지를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목사님은 말 한대로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는구나. 지금 목사님이 피닉스에 계시다는 것은 그가 선포하신 것을 사실로 믿는다는 뜻이지”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활동과 행동은 내가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거기에는 내가 믿고 있는 것과 내가 믿는다고 선포한 것을 증명할 증인이 따를 것이고, 증함이 따를 것입니다.

That's what the Bible is saying, so that if your works are not in harmony with your profession, your profession is a lie. It is empty and you'll never be saved by a lie. I believe in Jesus Christ. Oh, great thing to say. Then let's see what it has done in the changed life. If you're still living after the flesh, if you're still doing the same old things that were a part of the past life, and yet you say, Oh, I believe Jesus is my Lord and Savior, you're a liar. 만일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신앙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다면 그 신앙은 거짓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공허한 것이며 거짓으로써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하기에도 얼마나 놀라운지요. 구원받은 후 변화된 삶에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혹은 과거의 한 부분이었던 구습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으면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구원자이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장이인 것입니다.

In the first little epistle of John, which we'll be coming to pretty soon, very shortly now, John is going to give us several professions that people make. Oh, I walk in the light. Oh, great thing to say, isn't it, but if you say you walk in the light and are walking in darkness, you are lying, you're not telling the truth. Oh, I'm not sinning. Hey, hey, wait a minute. If you say you have no sin you make God a liar and the truth isn't in you. Oh, I abide in Christ, what a glorious thing. If a man says I abide in Him, that is a glorious thing to say. But if you're abiding in Him then you ought to be walking as He walks. Oh, I love God.

Another glorious thing to say. But I hate my brother. John said, You're wrong, you've got a mistake here. How can you love God whom you have not seen and yet hate your brother, whom you have seen, who was made in the image of God? So, it's not what I say, it's the works that prove my belief and my faith. 우리가 곧 이어서 공부하게 될 사도 요한의 첫번째 서신에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행하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요.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말로는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면서 실제 생활은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겠죠. “무슨 말이세요? 자, 보세요.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합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입니까. 만일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 하면 그것은 말하기에는 더없이 영광 스런 것입니다만, 그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싫어해요” 이러한 모습을 향해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한 일서 4:20)고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의 보이는 동생은 미워할 수가 있습니까? 당신의 동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입은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의 행실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nd so Paul said, “Now, affirm to those that believe in God, affirm constantly this truth, that they maintain good works”. Let your works be in harmony with your declaration of faith. 바울도 디도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행실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시다.

But avoid foolish questions, and genealogies (3:9), 이제 9절 말씀으로 갑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을 피하라”

Ministers can become ensnared in so many foolish questions, which quite often are not really asked with an honest desire for an answer. And there's a difference between foolish questions and honest, serious questions. I have no time for foolish questions



where a person is just wanting to cast doubt on the Scripture. Where did Cain get his wife? I'm always suspicious of a man who is interested in another man's wife. "Avoid the foolish questions, and genealogies," 사역자들은 가끔 올바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묻는 질문들로 인해 궁지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질문과 정직하고 진지하고 정직한 질문은 분명히 다릅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묻는 어리석은 질문에 시간을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사이에서 단지 가인과 아벨만 태어났는데 그렇다면 가인은 어디서 그의 아내를 취했습니까? 라는 식의 고약한 질문인데요, 성경은 "어리석은 변론과 다툼을 피하십시오"라고 가르칩니다.

and the contentions, and strivings about the law; for they are unprofitable and they are vain (3:9). 계속하여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They're a waste of time. Every once in a while I get caught up in them, some kid will come along and start asking questions just to create arguments. Sad.

이런 태도야말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들과 함께 자리를 갖게 되면 언제나 어떤 어린이가 와서 창조론에 대해 질문을 합니다.

[Now] a man that is a heretic (3:10),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기록돼 있는데요,

And that's a man who believes something that you don't, his beliefs differ from yours. 이단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것을 믿는 혹은 여러분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after the first and the second admonition then reject him (3:10);

10절 말씀에 계속하여 이런 사람은 "한 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 하라"고 합니다.

In other words, if he continues after you have admonished him twice, then reject him. Admonish him a couple of times. Give him a couple of chances. If he is a heretic and has got some weird doctrine, give him a couple of admonishments. And if he doesn't heed the admonishments then put him out of the fellowship, reject him. 바꾸어 말하면, 만일 여러분이 그를 두 번이나 경고한 후에도 그치지 않으면 그를 거절하라는 뜻입니다. 그에게 몇 번의 기회는 줄 수 있습니다. 만일 그가 이단 추종자이고 좀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게 몇 번 경고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 그 경고에 주의하지 않는다면 그를 그리스도 몸 밖으로 끌어내어 내어 쫓으십시오.

Knowing that he that is such is subverted, and sins, being condemned of himself (3:11).  
11절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Now he finishes the epistles with different little personal sides to the different ones.  
바울은 자신의 사적인 것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문안의 말로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When I shall send Artemas unto thee, or Tychicus, be diligent to come unto me in Nicopolis: for I have determined to stay there this winter (3:12).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테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 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과동하기로 작정하였노라”

So, he was going to send some relief to Titus. Either Artemas or Tychicus were going to go and take up Titus's position, so that Titus could meet Paul there in Nicopolis, where Paul was planning to spend the winter. 바울은 그레테 교회에 있는 디도에게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아테마다와 두기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들은 디도의 뒤를 이어 직임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는 바울이 겨울을 보내기로 한 니고볼리에서 바울을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Now,] bring Zenas the lawyer with you and Apollos (3:13) 이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법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Apollos that great interesting man that ministered in Ephesus and then later in Corinth. He became no doubt, a companion with Paul. I imagine they had a great time together because they were both so knowledgeable of the Hebrew Scriptures and they were both able to convince men mightily from the Scriptures that Jesus was the Messiah.

So, he wanted Zenas the lawyer, and Apollos, and take care of them.

아볼로는 에베소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바울에겐 더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함께 동역함으로 얼마나 놀라운 시간을 가졌을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두 사람 다 유대 구약 원본에 대해 박식했으며, 그 성경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말하고 있음에 대해 큰 확신에 거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교법사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테의 그리스도인들을 돌보기를 원했습니다.

don't let anything be wanting unto them. And let ours also learn to maintain good works for necessary uses, that they be not unfruitful. All they that are with me, [greet] salute you. And greet them that love us in the faith. Grace be with you all. Amen (3:13-15). 이제 디도서의 마지막 부분인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문안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찌어다” 아멘

Paul's letter to Titus. Next week we get to the shortest book in the New Testament, the book of Philemon. But the lessons that are there in Philemon are glorious. A tremendous blessing next Sunday night as we study the intercession of Paul the Apostle, which gives us a little insight of the intercession of Jesus Christ for us. And so it will be a short lesson next Sunday night, but dynamic as we study this book of Philemon.

지금까지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인 디도서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간부터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인 빌레몬서를 살려보게 됩니다. 빌레몬서에 있는 교훈들은 놀랍고도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입니다. 다음 주일 저녁에는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하시는 모습을 통해 통찰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짧은 내용일지라도 역동적인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May God be with you, and may God bless you, and may God keep you in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may God help you to abound in all good works, for the glory of His name and of His kingdom. And may God strengthen you in your walk with Him, in Jesus' name.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과 당신 나라의 영광을 위해 우리들의 모든 선한 일 가운데 넘치게 채워주시길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행하시므로 강건케 하시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